

## 12. '94首都圈 宅地開發豫定地區 1千萬坪 指定計劃

(270만평은 기지정, 740만평 추가지정)

資料提供：建設部

-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93~'97)동안에 수도권지역에 매년 25만호씩 총 125만호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소요택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지난 3월까지 270만평을 지정한데 이어 8월까지 300만평, 11월까지 430만평 총 1,000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정('80.12.31, 법률 제3315호)이래 '81~'94.5 현재 수도권지역에 총 4,200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년평균 약 300만평의 지구지정을 하였으며, 특히 '81년에 주택 500만호 건설시책관련 450만평을 '85년에 서울에 중계, 하계동등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등 450만평을, 그리고 '89년에 5개 신도시를 포함하여 2,000만평을 지정함으로써 대체로 5년 주기로 택지의 대량지정, 공급이 이루어져 왔었다. 이러한 과거추세를 감안할 때 '94년도에 1,000만평 지정이 될 경우 '89년 5개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지구지정을 제외하고는 '81년 이후 가장 많은 지구가 지정되게 된다.
- 한편 수도권택지공급계획에 따르면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중 공공부문에서 매년 480만평 택지를 공급토록 계획되어 있어 '94년, '95년은 기지정된 1,840만평중 '93년 이미 사용된 660만평을 제외한 1,180만평 중에서 공급이 가능하므로 금년에 지정되는 1,000만평은 주로 '96년, '97년에 매년 500만평씩 사용가능택지로 조성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 '94년도 공공부문 택지분양실적 및 계획

- 총 4,724천평(서울시 284, 인천시 625, 경기도 3,815천평) 분양계획

- 이 중 '94. 4월까지 500천평 분양, 연말까지 4,224천평 추가 분양

- 금년 분양택지는 '95년 사용가능택지로 공급예정

### 년도별 수도권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현황

'81년	450만평	'88년	100만평
'82년	10만평	'89년	2,080만평
'83년	180만평	'90년	120만평
'84년	110만평	'91년	110만평
'85년	450만평	'92년	30만평
'86년	160만평	'93년	130만평
'87년	-	'94년	270만평

**공기보다 품질생각 이익보다 기술생각**